

이란, 이라크에 천연가스 대량공급

하루 2500만입방미터로 연간 37억달러 상당 ... 이란 최대 수출계약

이란이 이라크에 연간 37억달러 상당의 가스를 수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테헤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바드 오지 이란 석유부 차관은 이라크에 하루 2500만^m의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바그다드에서 체결했다고 7월21일 발표했다.

또 양국이 하루 2000만^m의 가스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이란이 체결한 가스 수출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대금결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란 국영 가스기업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바드 오지 차관은 수출계약에 따라 이란 서부 Aram 주에서 공사하고 있는 227km의 가스관과 이라크에서 1-2개월 후 완공 예정인 270km의 가스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최종합의는 8월 물러나는 마후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이 7월 18-19일 이라크를 방문한 직후 성사됐다.

1980년 9월 발발해 8년간 지속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서먹하던 양국 관계는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후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8년 이라크를 방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3>